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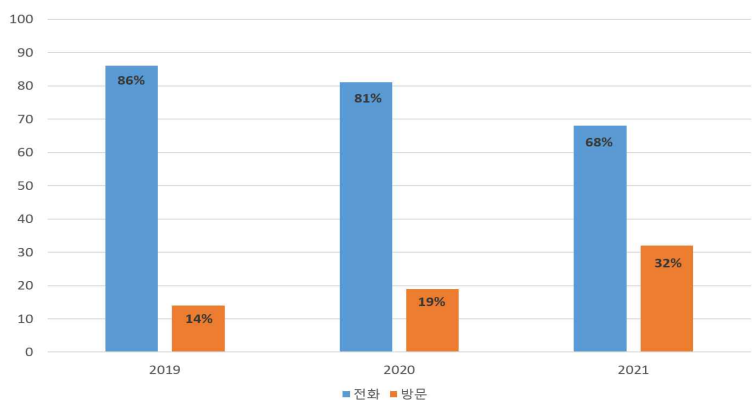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2월 24일(목) 총 4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시민정책 담당관실	담당자	·시민소통팀장 안성기 ☎440-2016 ·담당자 조영인 ☎440-202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인천시민 소통민원 365건**  
 - 보건·복지(82건), 도시(81건), 교통(68건) 順 -  
 - 비대면 소통방식 확산 불구, 방문접수 꾸준히 증가... 민원 해결 함께 노력 -

지난 한 해 동안 시민 불편사항, 행정청 업무추진 불만족, 중재요청, 정책 제안 등 365건의 소통민원이 인천광역시 시민 소통실을 통해 접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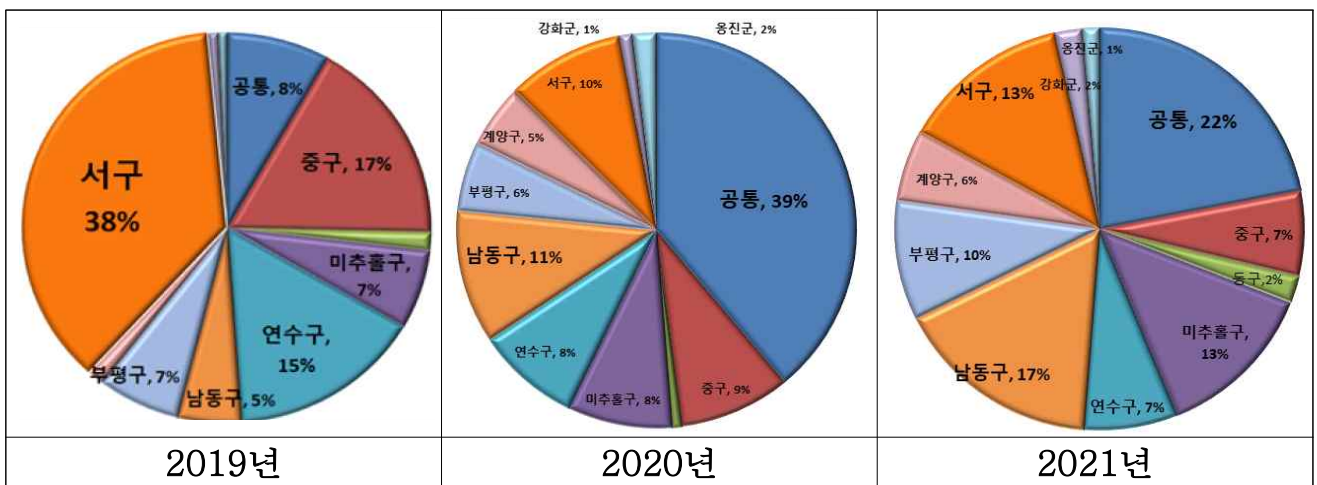
전화민원 249건(68%), 방문민원 116건(32%)으로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방문민원 비율은 전년대비 13%p(19%→32%)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접수 방식 현황 〉

이는 온라인 시민청원, 집회 등 민원의 집단화에 따라, 부서와의 사전조율 및 절차상담 등을 위한 방문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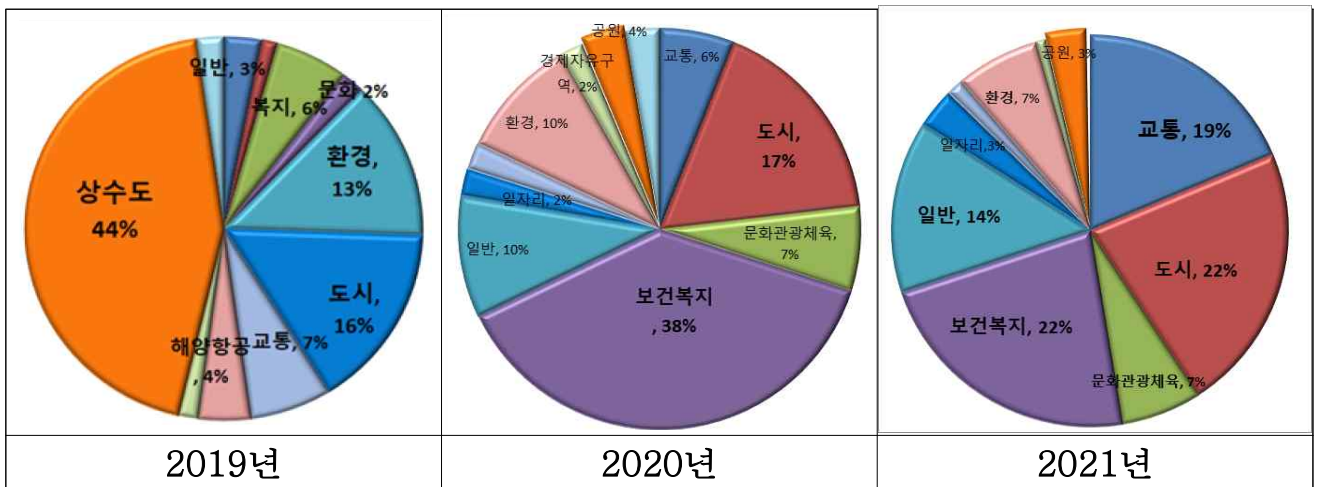
자치구별로는 남동구 60건(17%), 서구 49건(13%), 미추홀구 47건(13%) 순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재난지원금 문제 등 자치구에 국한되지 않는 민원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 구·구별 접수 현황 >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82건(22%), 도시 81건(22%), 교통 68건(1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력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보건·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57건 감소(감16%p)한 반면, GTX·도시철도 및 버스노선·주차문제 등 교통 분야, 부동산경기 호조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도시 분야 민원은 각각 13%p, 5%p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 분야별 접수 현황 〉

시민소통 민원은 영흥매립지 조성 반대, GTX노선 반영 요구,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각종 개발사업 구역 주민들의 집단 항의 방문 등 공공정책 관련 사항 외에도 내 집 앞 변압기 철거 요청, 대출심사 통과 지원 등 개인적인 상담까지 다양하다.

시민소통실에서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해당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풀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해결한 대표적 민원 사례로는 ▲주민 합의를 통한 승인지하차도 민·관 상생협약 및 공사 시행 ▲동구 수소연료전지 합의 ▲한전 변압기 이설 ▲신용보증재단 대출심사 안내 등을 들 수 있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코로나 시국에도 시민소통실로 직접 방문하는 시민들은 나름의 사연들이 있기에 시의 권한 여부를 떠나 경청을 통해 공감하고, 상담을 통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열린 시민의 공

간으로서 운영할 것”이라며 “비대면 소통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민소통실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시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민소통실은 2018년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직소민원실에서 시민소통실로 확대 개편되어 시민들의 전화, 방문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시민소통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 홈페이지 ([www.incheon.go.kr/cool/](http://www.incheon.go.kr/cool/)) 소통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